

경찰 “혜경궁 김씨=이재명 부인 김혜경”... 내일 송치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언론 공개되지 않은 증거도 다수 확보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의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

경찰 수사결과,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동일인 판단 주요 사례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혜경씨가 카카오톡에 올린 이재명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 김씨가 카카오톡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림.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이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림

‘혜경궁 김씨’는 다음날 낮 12시 47분 사진을 리트윗했고, 김씨는 13분 뒤 카카오톡에 캡처 사진을 올림. 김씨의 카카오톡에 올라온 이 사진이 캡처된 시각은 ‘12시 47분’으로 표기돼 있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은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작성했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도 일치.

혜경궁 김씨 (@08_hkkim)		김혜경 씨	
성남시	거주지	성남시	
여	성별	여	
군대에 간 아들 있음	자녀	군대에 간 아들 있음	
S대 음악 전공	대학 전공	S대 음악 전공	
44	휴대전화 뒷번호	44	

연말뉴스 외 이메일 아이디 비슷함.



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19일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

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판단한 근거를 알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톡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 단서를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6년 7월 중순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 등의 단서도 김씨와 일치하고, 이외에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누군지 찾으려고 그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씨는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수사결과가 알려지자 이 지사 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7개월여 만에 끝이 났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명이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해왔다.

/수원=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서울로7017로 출동한 캐릭터들 18일 오후 서울로7017에서 열린 인형극 대행진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들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연말뉴스

서울시, 부실 상조업체 30곳 적발

특별점검 실시... 15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등 부실 상조업체 30곳을 적발하고,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1월 24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시는 자본금 미달 업체와 재무건전성 부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시 민사단은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 선수금을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한 업체 1곳 등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15명을 형사입건했다.

시 민사단은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를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과태료, 시정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시 민사단은 행정처분 18건, 부실·영세업체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

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 등 총 30개사에 대한 행정조치와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연금보상안 외에 다른 방안으로 대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 여부, 선수금 보전 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 적정 예치 여부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 및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지난달 서울 생필품 4개 중 3개 가격 올라

소비자단체協, 39개 품목 조사 세탁세제 등 최대 5~6% 올라

지난달 서울 시내에서 판매된 생활필수품 4개 가운데 3개 품목이 한 달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세탁세제와 식용유로 한 달 새 5~6%나 뛰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8~1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유통매장과 슈퍼마켓에서 생활필수품 및 가공식품 39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 39개 품목 가운데 29개(74.4%)가 전월보다 가격이 올랐고 9개(23.1%)가 내렸으며 1개(2.6%)는 변동이 없었다.

가격이 상승한 품목을 보면 세탁세제는 9월 평균가격 7272원(3kg)에서 10



18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세탁세제를 고르고 있다. /연말뉴스

월에는 7749원으로 6.6%(477원) 올랐다. 식용유(1.8l) 평균가격은 이 기간 5359원에서 5654원으로 5.5%(295원) 상승했다. 세탁세제와 식용유에 이어 시리얼(3.4%), 두루마리 화장지(3.3%), 쌀장(3.1%), 된장(2.6%) 순으로 많이 올랐다.

하락 품목은 9개에 그쳤으며 하락

폭도 상승 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삼푸가 1.1%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으며 이어 간장(-0.7%), 맛김(-0.6%), 햄(-0.5%), 즉석밥·아이스크림(-0.4%) 순으로 나타났다.

고추장은 전월과 가격이 같았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65개 특별단속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25개 사업장에 행정처분·고발 조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내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소를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25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급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경기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탈미를 잡혔다. C목재 가공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서울연구원 ‘한국경제 규칙 바꾸기’ 출간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계적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대담이 책으로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과 지방정부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실행해온 정책을 한 권에 담은 단행본 ‘한국경제 규칙 바꾸기’를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책은 99:1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위코노믹스’를 주장해 온 박원순 시장의 서문과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 석학이자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의 발간사를 담았다.

책은 일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만5000원이다. /김현정 기자 hki1@